

心風熱證 患兒 21例에 대한 導赤降氣湯의 證例 報告

함소아연구소
朴贊國*

報告導赤降氣湯之證例對於心風熱證患兒二十一例

HAM小兒研究所
朴贊國

所謂 心風熱證是相火熾盛而血燥，引起飲水多，濕熱鬱滯於血分的結胸病。因而，胸中水氣不能下降，由此可見類似少陽病的結胸證象，而且在體表容易造成仍有不盡消散的風濕邪。如此病況下，心臟之熱影向小腸而出現，尿頻而不利，或尿量少而小便不利。綜上所述，如下要略其內容。

1. 導赤降氣湯是適合用於少陽人少陽病濕熱結胸。
2. 其病證雖屬於血分證，因仍有表證，故宜兼用發散之劑。
3. 如兼有眼痒等 肝膽病證，還另加其他處方。
4. 該方對消化系統虛弱，兼有手足冷，暈車，前頭痛，腸炎 等的患兒，其效果欠佳。
5. 由此可知，導赤降氣湯是針對心有濕熱，胃也有熱，仍有表證，不兼有肝膽病證的患兒療效好。如有小柴胡湯證，則先用柴胡之劑而解除該證，然後再辨證，才算是該治法的原則。

關鍵詞：心風熱證，相火熾盛，血燥，結胸病，導赤降氣湯。

I. 緒論

2005년 춘분 이후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頭汗이 많고 左寸의 脈이 滑實한 아이들이 유별나게 많아 이들을 치료한 내용을 공개하고 왜 이러한 병증이 많은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였다.

運氣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5년은 乙酉年으로 客氣의 二之氣가 少陽이고, 主氣의 二之氣가 少陰이므로 兩火가 합쳐져 火가 성한데다가 지난해부터 강수량이 많아 濕이 겹쳐져서 습열이 성한 이러한 병증이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 가지 원인으로만 병이 오는 것은 아니다. 運氣가

나빠 병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더욱 많기 마련이다.

본 논문은 환경과 생활에서 기인한 병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導赤降氣湯의 적응증 및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물론 더욱 풍부한 임상례로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케이스 규모가 적어 強斷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임상 논문을 쓰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중의 한 보고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1. 심풍열증

心風熱症이란 대부분 外感으로 생긴 열이 衛分과 氣分에서 풀리지 않고 營血분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임상적 증상은 “夜啼”를 비롯하여

* 交信著者：朴贊國，함소아연구소, ckpark@hamssoa.net

多夢 淺眠 頭汗 小便不快 夜尿 胸悶 胸痛 舌尖赤 太息 內關穴 압통 등을 동반하고 脈診은 左寸脈이 滑實한 것이 특징이며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것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病變이 小陰經에서 나타나지 않고 手厥陰 心包經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心 자체의 病證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재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導赤降氣湯증에서 발현되는 아재 증상은 대개 12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 날카롭게 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며, 짜증이 심해지거나 예민한 성향이 나타났다고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 흔히 감기에 속발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혈분의 열병이므로 아토피, 알레르기, 두드러기가 함께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육경변증을 하면 물론 少陽病에 속하고 少陽病에서도 結胸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四象醫學적으로 본다면 少陽人의 少陽病 結胸 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도적강기탕

동의보감 내경편 心臟門 중 心病證의 내용을 보면 '心に 사기가 있어 아플때는 가슴이 아프고 잘 슬퍼하며 …… 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부위가 아프며 손바닥이 달고 헛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잘 잊어버리고 기억해두지 못하며, 놀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가슴속이 몹시 답답하고 참을 수 없이 피로우며, 즐거운 때가 없는 것은 다 심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란 설명이 나온다.

또한 雜病編 小兒門 중 夜啼의 내용을 보면 '열증이면 속이 답답해서 우는데 얼굴이 벌겋고 소변도 붉으며, 입안에 열이 있고 배가 따뜻하다. 혹은 땀이 나며 몸을 뒤로 젖히면서 운다. 또는 초저녁에 몸을 뒤로 젖히고 땀이 나면서 울며, 얼굴이 붉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반드시 痰熱이 있는 것이므로 새벽에 가서야 멎는다. 이럴 때는 導赤散에 黃芩을 넣어 달여 먹인다'란 말이 나온다.

導赤降氣湯 處方은 生地黃, 木通, 瓜蒌仁, 玄蔘,

澤瀉, 白茯苓, 荊芥, 防風, 前胡, 羌活, 獨活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生地黃 木通 甘草 靑竹葉으로 구성되어 清心養陰, 利水導熱의 효능을 갖는 導赤散 처방에서 그 정신을 찾을 수 있다. 導赤散은 宋代 錢乙이 A.D 1119년에 간행한 小兒藥證直訣에 처음 수록된 이후 여러 문헌에 인용되어 온 처방이다.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導赤散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心に 熱이 있는 것을 치료하지만 실제로는 小腸病에 쓰는 약이다. 心臟의 熱이 小腸으로 옮겨가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導赤降氣湯의 適應症을 夜啼, 胸悶, 胸痛 혹은 背痛, 한숨, 頭汗, 小便淋漓 혹은 不利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患兒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頭汗, 胸悶, 胸痛, 한숨 등은 心의 병증이고 小便不利는 小腸의 병증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심에 濕熱이 울체되어 신장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소변불리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사상의학의 처방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가미한 것은 상초에 울체한 양기를 발산시켜 폐기를 숙강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만약에 폐기를 퍼지 않고 그냥 생지황과 목통으로 심열만을 내린다면 일시적으로는 심열이 내려가 소변이 통할 수 있겠지만 폐기가 선포되지 않으면 항상 재발할 우려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외감으로 인하여 심의 濕熱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導赤降氣湯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처방내용 : 生地黃12g, 木通8g, 玄蔘8g, 瓜蒌仁8g, 前胡4g, 羌活4g, 獨活4g, 荊芥4g, 防風4g, 白茯苓4g, 澤瀉4g,

II. 證例

1. 연구대상

2005년 3월 12일부터 2005년 3월 24일 중 7일

간의 진료기간 동안 강남합소아한의원으로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 중 한의학적 辨證에 의해 心風熱症으로 진단받고 導赤降氣湯을 복용한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21명의 환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21명이었으며 남자 12명 여자 9명으로 구성되었다.

2. 케이스 선정 기준

4월4일 조사시점에 가장 가깝게 복용이 끝난 3월 12일, 14일, 17일, 19일, 22일, 24일, 26일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心風熱症 診斷을 받은 환자에 대해, 약 복용을 마쳤고 당시 다른 처방과 합방하지 않았으며 그 후 타 處方을 복용하고 있지 않고 타 疾患으로 추가 내원하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였다.

3. 전화추적 문진항목

증상의 호전여부에 대한 전체적 확인 및 소멸된 증상 선별

야제, 불면, 헌숨, 짜증과 예민함 4대 증상에 대한 호전여부 확인

4. 케이스 결과

성별	연령	복용기간	내원시 증상	약복용후
여	4세 5개월	10	아토피, 眼下赤, 감기數, 소변黃, 차멀미, 수족冷, 多汗, 좌촌맥澁	별무호전
남	3세 1개월	14	아토피, 鼻塞, 재채기, 眼下赤, 잠꼬대	일체증상소멸
남	3세 4개월	10	鼻塞, 發赤, 소변黃, 夜啼, 淺眠, 냉음好, 太息, 좌촌맥滑	夜啼, 눈밀그늘, 두드러기 소멸, 체중증가
여	4세 3개월	15	콩다래끼, 잠꼬대, 소변數黃, 수면중음수, 췌기설, 舌尖赤, 냉음, 頭汗, 좌촌滑	별무호전
남	3세 3개월	12	아토피, 口臭甚, 장염이환, 身熱, 多飮, 多汗, 눈비빔, 鼻塞	별무호전

성별	연령	복용기간	내원시 증상	약복용후
남	7세 4개월	15	비단, 식욕, 多汗, 多夢, 소변黃, 안충혈, 좌촌滑	식사량감소, 소변, 구역, 두통해소, 체중감소
여	6세 3개월	15	아토피, 성장부진, 眼下赤, 소변황, 鼻塞, 야제, 소변數, 좌촌滑	夜啼, 眼, 下赤 소멸
남	4세 1개월	12	야노, 夜啼, 鼻塞, 좌촌滑	야노감소
여	4세 10개월	10	기침, 가래, 眼痒, 鼻淵, 鼻痒, 좌촌滑數	비염, 가래, 眼痒 소멸
남	2세 11개월	10	善驚, 夜啼, 太息, 양촌滑澁	善驚, 소변문제 호전
여	4세 10개월	12	아토피, 眼痒, 소변黃, 淺眠, 太息	夜啼, 아토피, 眼痒 소멸
남	4세 3개월	14	가래, 기침, 眼痒, 頭汗, 좌촌滑澁	별무호전
여	7세 9개월	12	코피, 夜啼, 鼻塞, 좌촌滑	코피 소멸
여	4세 8개월	12	감기, 鼻塞, 기침, 천두통, 頭汗, 소변數黃, 좌촌滑	별무호전
여	2세 11개월	10	眼, 下赤腫, 소변黃, 頭汗, 잠꼬대, 아토피, 鼻塞, 좌촌滑	별무호전
남	4세 9개월	10	식욕부진, 구역감, 코주위黃, 좌촌滑	구역감 코주위黃 소멸
여	2세 11개월	10	감기, 쿨물, 기침, 頭汗	감기 소멸
남	4세 4개월	10	코감기, 기침, 가래, 비염, 面黃, 소변黃, 눈물, 不眠	비염 소멸
남	42세 1개월	10	비염, 아침부종, 피로, 슬관절염	피로, 무릎개선, 소변문제 소멸
남	3세 4개월	10	기침, 눈곱, 頭汗, 淺眠, 좌촌맥滑	감기증상소멸, 식욕개선
남	6세 4개월	12	두한多, 太息, 좌촌활, 성장부진	별무호전

표 1 케이스 결과

Ⅲ. 考 察

이상의 케이스 결과를 검토해보면 총 21례의 경우 중 14례에서 소멸 혹은 뚜렷이 개선되는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료 시점 당시 알려지 증상을 보이던 8례의 경우 중 6례에서 알려지 증상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外感性 心風熱症의 진단 후 이에 준하여

치료할 경우 동반된 알러지 증상이 호전 혹은 치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호전 사례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논자의 경험으로도 少陽病 結胸이 導赤降氣湯만으로 다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중 첫번째로 흔한 경우가 夜啼와 함께 小柴胡湯으로 치료해야할 肝膽의 病證을 겸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小柴胡湯 系列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환자가 사상의학적으로 소양인이 아닌 경우를 들 수 있다.

환자가 뚜렷한 太陰人일 경우는 導赤降氣湯보다는 四象方의 淸心蓮子湯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少陰人으로 생각되면서 結胸症이 있다면 小柴胡湯에 平胃散을 합방하고 梔子和 豆豉를 가하여 복용하면 導赤降氣湯의 치료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다.

논자의 진료 경험으로는 최근 이러한 병증을 가진 아이들이 부쩍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마스크 보고에서도 소아의 불면과 야제가 만연되어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洋醫學에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당장 아이들이 이 病으로 호소하는 고통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진 않지만, 成長不振 食慾不振 알레르기 아토피 유발 등으로 소아의 건강에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상이 흔하다는 것은 現代人의 血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血이 약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우리가 먹는 農産物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農産物 중에서도 사람의 赤血球와 같은 작용을 하는 葉綠體는 모두 채소에 있는데 우리가 먹는 채소의 많은 분량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은 露地에서 자라는 식

물의 잎처럼 그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또한 푸르지도 않다. 이는 비닐하우스 식물의 葉綠體가 싱싱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露地에서 자란 식물이라 할지라도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싱싱한 葉綠體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둘째로는 感氣나 기타 外感病이 생겼을 때 정확한 변증을 통해 열을 발산시키는 치료를 하지 않고 解熱鎮痛劑와 抗生劑를 투여하는 것이 熱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熱로 인해 血이 망가지는 것 같다.

셋째로는 주거환경이 덥고 現代人들이 햇볕을 적게 쏘이고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넷째로는 현대인이 전기 불을 많이 사용하여 밤에도 낮과 같이 조명이 잘되고 밤에 컴퓨터를 하거나 기타 오락이나 사업관계로 밤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IV. 要約

心風熱症이란 相火가 盛하고 血이 조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어 濕熱이 혈분에 울체된 結胸病이다. 가슴의 水氣가 하강하지 못하여 少陽病 結胸 樣相을 보이면서, 또한 表에도 아직 風濕 邪氣가 울체되어 발산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쉽다. 心臟의 열은 고스란히 小腸에 영향을 미쳐 소변을 자주 누더라도 시원치가 않거나 혹은 小便의 量이 적은 小便不利의 症狀이 있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導赤降氣湯은 少陽人의 少陽病 濕熱結胸에 잘 듣는 處方이다.
2. 血分病이라 하더라도 아직 表症이 있으므로 發散之劑를 같이 써야 한다.

3. 眼痒 등 肝膽의 병증을 겸하고 있는 病證은 추가적인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4. 手足冷 차멀미 前頭痛 腸炎罹患 등 消化器가 약한 아이에게는 치료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5. 그러므로 導赤降氣湯은 心에 濕熱이 있으며 胃에도 熱이 있고 아직 表症이 남아 있으며, 肝膽의 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患者에게 치료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만약 柴胡證이 있다면 먼저 柴胡之劑를 복용하여 해당 증상을 치료한 후 다시 변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V. 參考文獻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2.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1972
4. 洪元植: 精校皇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